

# 바울의 現存 理解

빌립보 3, 1-14

## (一)

「형제여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바울은 두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 하나는 과거 속의 자기와 다른 하나는 미래(오고 있는)속에서의 자기다.

과거에는 자랑스러운것이 많았다. 그는 본문 4절에서 부터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에 있어서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 합니다」라고 전제하고 가장 전통적인 血統과 가문에서 났으며 율법상으로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이었고 不義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투쟁으로 기독교의 박해의 선봉에 나섰

든 이력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기의 過去를 잊어 버린다고 한다. 잊어버린다는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그런것을 「책로 역일」뿐 아니라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는 過去에서 脫出하고, 탈출하려는 자기를 말한다. 이것은 발전된 어떤 보다 높은 次元에서 過去의 자기가 유치 하게 보여서가 아니다. 아니! 그 과거가 계속 도전 또는 자기를 포로로 할려는데 대한 결단의 선언이다.

老子는 「功成而不居, 夫唯不居 是以不去」라고 했다. 즉 공을 이루었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오직 거기 머물지 않을때만 실은 거기 머물수 있다는 것이다. 이말은 그의 과거의 업적에서 떠나라는 뜻에서는 바울과 같다. 그러나 그 차이는 질적이다. 老子가 과거에서 떠나라는 것은 실은 過去에 되도록 오래 머물기 위해서다. 즉 자기의 업적을 되도록 오래 빛내기 위해서다. 이것은

과거에서의 脫出이 아니라 過去에 安住하자는 處世的인 知惠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과거(업적)로 부터의 철저한 탈출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에 되돌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앞에것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다. 그 앞에것을 표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되려고」 「나 자신의 義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義」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하기 위함」 등등 여러가지 표현을 한다. 그 앞에것은 단적으로 참「나」다.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과거를 배설물 처럼 버린다고 한다. 그는 참나는 「그리스도안」에, 그를 「믿는 믿음」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하므로써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과거를 버렸다는 과거의 自身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가 버린것은 과거에서 얻은것, 가진 것들을 버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과거에 얻은것들을 「배설물」처럼 증오하면서 버려야만 했든가? 그는 그런것들을 가진 것으로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런것들이 자기의 삶의 보장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것을 버리되, 배설물 처럼 버리는것은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했든것이 自身을 속이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서 얻은 모든 것이 그

것은 주어진 것이든, 노력해서 얻은 것이든지 간에 自己 自身은 아닌것을 알았을때 버린 것이다. 허부리인이 됐다는 사실, 바리새派에 屬했다는 사실, 또는 律法을 지켰다는 사실이 자기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다. 가진 것이 바로 「나」일 수는 없다. 存在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과 다른 문제다. 아니! 存在한다는 것은 가졌다는 以前の 문제다. 그런데 가진것이 마치 自己 삶의 보장처럼 安住하고 있는 동안 그는 自己 存在를 묻지 않으므로써 자기를 喪失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를 보장한다고 생각 했든 그런것들이 실은 나를 잃어 버리게 한 것을 깨달은 그는 그런것들을 배설물처럼 타기한 것이다. 이미 있는 것들에 나를 적응 시키므로써 나의 現存性이 밝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현실을 감추어 버림을 알았을 때 그는 그런것들을 버려 버린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결단에서 우리는 그의 現存 現解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떤것인가? 우리는 그의 人間存在 이해와 대조적인 회람의 인간관과 비교해보기로 하자.

## (二)

회람 인간관은 「코스모스」라는 개념에서 결정된다. 「코스모스」란 있는것 全體를 표현한 개념이다. 그것

은 있어야 할 것은 이미 다 갖추어진, 그 자체로써 完結된 秩序다.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제 궤도를 돌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모든 萬物을 生成消滅케 한다. 인간은 이 우주에 屬한 존재다. 회람에서 人間은 특별한 存在라고 한다. 그것은 人間이 영원한 법칙을 알 수 있는 「누우스」 即 理性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이성 본질상 영원한 우주의 법칙과 일치한다. 그래서 인간을 小宇宙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사실상 인간은 곤충이나 草木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 왜냐 하면 그도 이 영원한 우주의 법칙에 依해서 제 자리가 주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적응시킬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는 저들의 諸神도 마찬가지다. 비록 神이라도 이 영원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 아래 제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차이가 있다면 機能上的 차이 뿐이다.

여기서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때야 하는지는 自明的이다. 즉 주어진 理性으로 이 영원한 법칙을 알므로 제 자리를 알고 다른 存在하는 것과 調和를 이루워 가면 자동적으로 제 궤도를 따라 돌게 된다. 여기서 삶이란 바로 발견(Entdeckung), 기술(테크닉)이 된다. 사는 것은 바

로 이 법칙을 찾아서 그것에 조화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같다. 저들은 도덕을 「테크네」 즉 기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법칙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다. 따라서 우주의 법칙만 알면 삶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자명적이다. 거기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이 법칙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일 따름이다. 자기 現存을 전체 속에서 理解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른 자연물처럼 객관화 해서 이해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를 全體의 한 例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 지금의 나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법칙이 돌아가는 과정의 현상이고 결코 固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가 마주선 너도 전체의 한 例에 不過하다. 이런 理解에서 사랑을 말한대도 어느 特定한 사람에 特有한 사랑은 있어도 안되고 所謂 「博愛」만이 있어야 한다. 너니 나라는 구체성(역사성)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현상이고 있는 것은 영원한 법칙 뿐이다. 이 마당에서는 나니 너니라는 구체적인 存在나 지금이라는 歷史的 현실이란 意味가 없다. 의미가 있다면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법칙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간관계에선 저들이 자유를 말할 때에도 바로 나니 너니, 이때니 저때

니 하는 具體性에서의 해방을 뜻한다. 자유란 개체로서의 내가 궁극적인 영원한 법칙에 몰입하는 일이다. 따라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는 구체적인것, 個體的인것에서 벗어나서 전체 속에 흡수되는 나의 非歷史化다. 여기에서는 비약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한걸음 한걸음 나를 전체에 적응해야 한다. 그래서 삶의 법칙과 그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기술공이 기계를,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듯 자기 삶이 비역사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내고 쓸어지는 植物처럼 人間의 삶도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人間觀에서 보면 「現存」이란 한 圓形으로 된, 영원히 돌고 도는 쇠사슬의 한 고랑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것이다. 오늘의 육체는 어제의 그것의 연속이며 내일의 육체가 어제의 그것의 필연이 듯이, 내 삶도 現在는 어제의 연속이며 내일이라고 달라질 것이 없다. 새것이란 있을 수 없다. 있다면 이미 있는것의 발전 또는 그것의 발전일 뿐이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必然뿐이고 偶然이란 있을 수 없다. 이말은 事件이란 없다는 말이다. 법칙만이 있는데 무슨 事件이 있겠는가? 自由가 없는데 우연이 어디 있겠는가? 諸神도 人間도

곤충도 결국 이 法則에 자기를 적응하는 길 뿐이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특히 佛敎를 통해서 이와 本質上 같은 인간관에 젖어 있다. 따라서 「現存」이란 때에 그것은 어제(原因)의 인연의 결과라고 생각해버린다. 宿命的이다.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現存은 어제의 業報다. 그러니 現存은 빚꾼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삶은 어제 진 빚을 갚는일에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現存은 어제에서 이어 받은 유산으로 채워졌다. 卽 어제가 갚아준 유산으로 사는 것이다. 즉 과거가 現存의 內容이다. 이렇게 보면 過去에서의 脫出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주장은 웃음거리로 밖에 앞들릴 것이다. 자기편에서 보면 과거에서 손을 뗀는지 몰라도 과거는 여전히 그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갔다고 해야 말뚝에 비껴어 맨 줄의 길이 만큼 나가 보는 어떤 증생처럼 과거의 줄의 길이 만큼 나가보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과거에서의 탈출을 선언한다. 이것은 그가 法이 지배하는 현실이 있음을 모르기 때 문인가? 아니! 그는 바로 그 현실만이 있는것의 전부라고 알고 그 안에서 가장 철저히 살아온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이 현실을 전 부로 알고 그것에 적응해서 사는 삶



을 「율법에 의한 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 성격적으로는 그가 말하는 율법과 회람의 영원한 법칙은 다르다. 그러나 법이라는 원칙, 既存的인 것으로서 사람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뜻에서는 같다. 그런 뜻에서 과거의 그의 삶은 「율법에 의한 나 자신의 의」란 영원한 우주의 법칙에 적응하므로써 자기를 산다는 회람적인 삶의 이해와 같은線上에 놓을 수 있다. 그는 이 율법을 알므로써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므로써 자기를 산다고 생각해 왔다. 그는 바로 이러한 자기理解에서 脫出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現存의 理解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의 그는 「現存」은 自明的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保障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현존한다는 것은 既定의 사실이고 (확정된) 그 전체에서 이제 이 삶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계기에서 그는 그의 現存이 결코 自明的인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즉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기 책상이나 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自明的인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그럼 무엇이 그 現存에 대한 물음을 자명적인 것처럼 덮어 두게 했나?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허부리人중의 허부리人 바리새人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이런 사실에 安住하고 있는 동안 “이런것들이 곧 나다!” 해진 것이다. 가진것이 내 現存에 대한 물음을 음폐해버린 것이다. 그는 그의 가진것에 도취해 있는 동안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은 다른 自然物이 있듯이 存在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처럼 지금 存在한다면 그것은 現存이 아니라 現在이다. 그러나 사람은 自己存在가 自明的인 것이 아니라 그 存在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므로써 「現存」한다. 사람은 자기 存在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어떤 다른 存在하는 것보다 비참해 질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느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결국 죽음에로의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로 하는데서 不安이 오고 고뇌가 따르고 또는 절망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물음으로써 人間으로써 存在하게 된다. 이 물음에서 人間은 自然의 법칙 아래 살면서도 그것에 예속되지 않고 全體속에 살면서도 全體에 흡수되지 않고 「나」로써 책임적인 存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을 하지 못하게 자기 눈을 가리운 것은 바로 그 「자랑 스러운」 가진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 처럼 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참 나를 찾으려는 것이다.

### (三)

「나는 가졌다,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증거다」 이처럼 생각해서 가진 것을 소중히 알고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동안 「나는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로 곧 정착되기는 쉬운 일이다. 그랬기에 바울은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므로써 자기 삶을示威했다. 네가 무얼 가졌느냐?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 즉 남과 비교해서 보다 더 가진 것에서 보람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과 나는 별개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런 것들을 버린 것이다. 그것을 버린 것은 과거의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버린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過去)과 나를 어떻게 유리시킬 수 있는가? 바울은 바로 나와 가진 것은 유리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버렸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리는 일 自體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곧 어디로 向하고 있는지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되려고」 이런 것들을 버렸다고 한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또는 그안에서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렸나? 그리스도를 바꾸어 가졌나? 아니 「얻으려고」 「발견 되려고」해서다. 아직 그런 현실에 돌입한 것이 아니다. 그

는 분명하게 「나는……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미 완전해 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거듭 거듭 말한다. 그럼 남은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現存」뿐이다. 이 現存은 가진 것이 없다. 이 現存은 오직 버리고 얻으려는 그 틀에 있다. 脫出하고 向해 가는 요 순간만이 있다. 卽 現存이란 「脫向」(Aus-Auf)일 따름이다. 바울은 이러한 現存을 똑똑히 밝혀 「오직 한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現存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라고 한다. 卽 途上에 있는 存在(Unterwegssein)다.

現存! 그것은 가진 것이 없다. 現存! 그것은 가난 하다. 그는 그 자체에 어떤 보장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不安하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으로 사느냐 또는 나로써 사느냐의 두 갈래 길에서 결단하므로 잃었던 自己를 찾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왜? 가난한 것은 過去에 매어 있지 않은 증거다. 이제 그에게는 오고있는 것(未來)뿐이다. 그는 온몸을 이 오고있는 未來를 向해 開放하고 있다. 未來를 向해서 활짝 연 그것이 그의 現存의 모습이 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可能性만

이 있다. 이제 그는 가진 것에 자기를 음폐하여 자기 현실을 도피하는 者가 아니고 나는 나로써 라는 責任的 存在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물을 것이 있다. 그가 앞에 있는 것을 잠울려고 한 다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이덱가」가 人間存在를 죽음으로의 存在라고 한 것은 이런 질문의 대답으로 볼 수 있다. 現象學的으로 보면 사실 앞에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現實을 피하지 않고 또 그저 끌려가듯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달려가서 그것을 앞당겨 온다면 그는 그때 自己를 찾은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가 죽으신 모양대로 죽어」라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향해 달린다고 한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지닌다」고 했다. 그는 확실히 죽음을 앞당겨 산 사람이다. 그는 이 죽음을 무서워 하지 않았다. 왜?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벌써 법칙 아래 있는 죽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 하므로써 벌써 법칙 아래서 오는 죽음을 脫出한 것이다. 그것을 그는 「나는 律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表現했다. 즉 法의 세계, 必然의 세계

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支配하는 영역 밖으로 脫出한 것이다.

이로써 바울은 自然物의 部分으로서의 동물이거나 또는 客體가 아닌 主體의인 實存을 찾은 것이다. 이제 는 자기가 타고 있는 바퀴가 돌아가는데 따라 自動的으로 돌아가는 自明的인 存在가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닥쳐오는 것과 직접 맞 부딪치면서 살아야하는 責任的인 存在다. 무엇이 닥쳐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오는 것과 맞부딪치면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삶을 創造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는 삶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적으로 개척해야하는 비연속적인 事件이 된 것이다.

삶은 事件이다! 바울은 나로써 살기 위해 이러한 「모험의 길」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겁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를 願해서 뛰어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러므로써 그의 부활 즉, 잃은 自己를 다시 찾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는 아직 잡았다(찾았다)라고 하지 않는가? 왜 아직도 앞에것을 向한 자기만 말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現存을 「여기 쫓아 있다」 「여기 새가 있다」와 같이 物

質의으로 存在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바울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 우리가 만일 人間의 現存을 過去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이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現存은 未來와의 관계에 있는 存在라는 것, 即 人間의 存在性은 事件의임을 알면 그의 말은 그대로 現存의 참 모습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우리가 人間의 사랑을 生物的인 '發露'라고 이해 하면 動物의인 自己充足과 더불어

(했다. 잡았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already)가 아니라 "아직도 아니"(not yet)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곧 거기서 脫出해서 앞으로 向한다. 사랑에는 이미(過去)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으레 이렇게 발견하지! 하는 연속성이 없다. 萬一 이미 된 일에 머물러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잃어졌다. 이것은 人間의 現存性이 그렇기 때문이다. 現存은 언제나 앞으로 向할 때만 찾아지는 것이지 뒤에 매여 있을 때는 잃어진다. 바울이 만일 어떤 순간적인 경험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든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宗教的인 敎理나 人間觀은 樹立됐을 수 있으나 그 순간 그리스도도

자기 實存도 잃어 버렸을 것이다.

바울은 「아직」자기는 그를 못 잡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잡으셨습니다」라고 한다. 그는 무엇인가에서 確信을 얻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確信을 얻었다. 그러나 그런 確信에 安住하지 않는다. 아니 그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아니」이다. 우리는 그가 잡는다는 말을 「所有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은 만남다(Begegnung)는 뜻으로 이해 해야 한다. 참 만남(사무적으로 내 스케줄의 일환으로 만나는 것같은 것 말고)은 어느 과거에 安着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아직도 아니」이다. 即 계속 오고 있는 事件이다. 사랑이나 만남에는 貯藏이란 없다. 이처럼 참 現存도 언제나 가진것을 저장하지 않고 未來를 向한다. 그럼에도 공허에서 절망하지 않고 存在可能(Sein-Können)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만나리라는 믿을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過去를 다 버리고도 아직 잡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바로 여기서 바울의 現存의 實相과 그의 理解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四)

우리는 흔히 내 이력서와 나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을 본다. 사업 또는 지금의 지위와 自己를 동일



한 것으로 착각한다. 우리는 언제나 밖으로부터 규정 받는다. 남의 인정을 절대시할 때 우리는 이런 밖에서부터의 규정과 나를 동일시 해버린다. 밖으로부터의 규정은 이미 있는 것들과 내 가진 것들에 依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된 것이 정말 난가?

우리는 종교인들에게서 같은 현상을 본다.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몇 십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 나는 교리를 알고 그것을 지켜왔다. 나는 이러 이리한 경험과 업적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人이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순간적으로 내 모든 것이 송두리채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평소에 자랑스럽게 생각되던 내 가진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림과 동시에 자신만만하던 내 삶이 공허 자체처럼 보이는 경험을 한다. 이것

은 내 가진 것들과 내가 유리된 것을 발견할 때다. 가령 내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에게서 멸시를 받을 때! 내가 失戀을 당할 때 내 가진 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이 난다. 내 가진 것은 무엇이랴도 다 주겠다는 이 애결함이 완전히 거부될 때! 그때 내 가진 것이 나를 전혀 보장 못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은 굳게 차단된 現存에의 노크 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노크 소리는 나를 절망의 문을 열고 추락케 버리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크 소리에서 비어있는 現存을 발견했을 때 당황해서 다시 過去의 유산을 그리 쥐면 나는 人間으로써 존재함을 포기하고 그저 살아가는 自然의 한부분인 「現在」로 전락할 것이며 바울 처럼 온몸을 기우려 앞것을 向해 달리면 새로운 存在可能性으로써 現存하게 될 것이다.